

## 미중 경쟁 지정학 속의 북중관계<sup>‡</sup>

이성현\*

- I. 문제제기: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 변수는 과연 '상수'인가?
- II.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핵 해결을 시도한 트럼프
- III. 북중 정상회담을 통한 중국의 견제
- IV.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불안
- V. '중국 역할론' 기대의 한계
- VI. 한국 및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

주제어: 미중관계, 북중관계, 북핵, 중국역할론, 한반도

### |국문초록|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중국을 의식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영향력을 매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왔다. 한국 담론장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필요성'은 마치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져 왔다. 본고는 대안적 답안을 모색한다. 그 시발점은 엉뚱하게도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과 동시에 "중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북한과 거래하겠다고 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돌출 성격으로 성사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역대 어느 북미 협상보다도 문제 해결에 양국의 최정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직접 숙의한 자리였고, 그만큼 문제 해결에 가까웠던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결국 핵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직접 마주 앉은 것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시도해볼만한 것이었다. 처음이라 정상 간 '툭다운' 프로세스가 보여준 분명한 한계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보완해 한국이 북핵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이를 기초로 동맹인 미국이 북한과 향후 실무회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본고는 현재의 교착 국면 상태에서 과거의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역할을 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중국 역할의 '한계'를 지적한다.

‡ 『국제관계연구』 제25권 제2호(2020년 겨울호).  
<http://dx.doi.org/10.18031/jip.2020.12.25.2.61>

‡ 본 논문은 2020년도 세종연구소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연구센터장

## I. 문제제기: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 변수는 과연 '상수'인가?

본고의 목적은 중국 변수가 트럼프-김정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의미를 작금의 미중 경쟁 구도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상수'로 여겨진다. 이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전쟁 등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증시되어 왔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하여 '중국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혹시 우리가 북핵 위기로 대표되는 북한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중국 역할론' 사유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중국 책임론'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니,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앞장서라는 독촉(督促)이다. 역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큼을 전제로 한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실체는 사실 새로운 질문이기보다는 북중관계를 다루었던 학자들이 고민해왔던 질문이기도 하다.<sup>1)</sup>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치

1) 중국의 대북 영향력, 이와 관련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전반적인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Wenxin Li and Ji Young Kim, "Not a blood alliance anymore: China's evolving policy toward UN sanctions on North Korea,"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41, No. 4 (2020), pp. 1-22. 이 논문은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북중관계를 둘러싼 학계의 전반적인 연구와 진행 논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Jae Ho Chung and Myung-hae Choi,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pp. 243-264. 이 글은 신중국 성립 이후 2010년, 즉 제2차 북핵 실험 전후까지의 북중관계와 북핵 문제, 그리고 양국 사이의 굴곡진 역사를 리뷰하는 데 참조가 된다. John Delury, "Triple-Pronged Engagement: China's Approach to North Korea,"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4, No. 2 (2012), pp. 69-73; Bonnie Glaser and Liang Wang, "North Korea: The Beginning of a China-U.S. Partnership?" *Washington Quarterly*, Vol. 31, No. 3 (2008), pp. 165-180. 이 두 글은 북중관계를 미국의 외교적 시각과 미중관계 시각에서 반추하였다; Stephen Haggard and Xian Wu, "Is China changing its views of North Korea: Some evidenc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이 글은 미국 대학 재직 중인 한반도 전문가인 저자가 중국인 대학원생과 협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Sukhee Han, "Alliance Fatigue amid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6, No. 1 (2004), pp. 155-179. 이 논문은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연구자가 북중동맹에 대해 진단한 글이다. 이 연구자는 나중에 상하이 주재 외교관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적인 태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이끌어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 결정과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북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이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이 동맹인 미국 주도의 ‘반중국’ 진영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sup>2)</sup>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그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 변수는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명제를 다시

Yufan Hao,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View,” *Asian Survey*, Vol. 27, No. 8 (1987), pp. 862-884. 이 글은 중국학자의 시각에서 쓴 북중관계, 그리고 더 크게는 중국이 보는 한반도 지정학에 관한 시각을 담았다. 북중관계의 한 축인 중국 측의 시각을 담은 이런 글이 많이 나오는 것이 건설적 논의에 도움이 될 터인데, 최근 시진핑 2기 들어서 중국 대륙 학자들이 북중관계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에 정치적 제약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Inhan Kim, “Trump power: Maximum pressure and China’s sanctions enforcement against North Korea,” *Pacific Review*, Vol. 33, No. 1 (2020), pp. 96-124. 이 논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 협상을 둘러싼 현안을 잘 기술하고 있다. Jih-Un Kim, “Inflated hope, unchanged reality: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sian Perspective*, Vol. 39, No. 1 (2015), pp. 27-46; Young Joon Kim, “China-North Korea relations: at a crossroad or same old, same old,” *Asian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Vol. 8, No. 3 (2019), pp. 307-318; Seong-Hyon Lee, “Why Did We Get China Wrong? Reconsidering the Popular Narrative: China will abandon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pp. 65-93;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2001), pp. 387-398; He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2010), 57-74; Inhan Kim, “Is China the Boss on Nor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22, No. 1 (2017), pp. 147-171. 이 논문들은 앞서 논한 전반적인 북중관계의 역사적 배경에서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태도와 대북 제재, 제재의 진정성, 북중동맹 관계의 지속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 밖에 한글 자료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동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pp. 157-192; 이희옥·박용국, “중국의 대북한 동맹 안보 딜레마 관리 대미 인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pp. 49-79; 오승렬, “미국과 중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서의 한반도와 북핵(北核) 딜레마,” 『국가전략』 제23권 3호 (세종연구소, 2017), pp. 63-92. 그 외 다수 한글 문헌이 있다.

- 2) 『한국일보』, “[논.담] 문정인, 동맹도 전략동반자도 수단일 뿐… 美中외교는 국익 최우선해야,” 2020년 6월 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41528076590> (검색일: 2020년 8월 3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역임한 마이클 그린은 ‘2020년 한미전략포럼’(ROK-U.S. Strategic Forum 2020) 발언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전선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말하면 한국 측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했다. 관련 회의 Youtube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qeynIj08pg&loop=0> (검색일: 2020년 10월 2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시각은 재고(再考)의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반문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실체와 본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그 도출된 결과가 “중국 변수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 과연 중요하다”라고 원점 확인이더라도 말이다. 그 과정에서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역시 본 연구의 수확이다.

이 시점에서 그러한 재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장기화의 길로 들어 선 미중 갈등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기술·군사·인적교류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 국무장관은 현 미중 갈등의 성격을 “냉전 초입단계(foothills of a new Cold War)”로 규정했다.<sup>3)</sup> 학자들 간에 현 상황 규정에 대한 합의된 견해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냉전 시대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공교롭게도 2020년 8월 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관영 신화통신사 기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빌어 현재 미중관계가 수교 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最嚴峻的局面)”에 있다고 진단했다.<sup>4)</sup> 본고는 미중 간 미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중관계의 하부 구조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당연시 여겨온 ‘중국 역할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2018년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2020년 현재까지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총 다섯 차례의 양자 회동을 가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과 병행적으로 추진된 북중 정상회담은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유례없는 적극적 관여정책으로 전환하자, 중국 역시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고

3) *Bloomberg News*, “Kissinger Says U.S. and China in ‘Foothills of a Cold War’,” November 21,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1-21/kissinger-says-u-s-and-china-in-foothills-of-a-cold-war> (검색일: 2020년 6월 15일).

4) *新華社*, “王毅就當前中美關係接受新華社專訪,” 2020년 8월 5일.

시도했다. 북중관계 밀착에 따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의 글에서 이것이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핵을 둘러싼 미중 간 외교에 제시하는 함의를 살펴본다.

## II.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핵 해결을 시도한 트럼프

### 1.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책임공방

임기 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North Korea is China’s problem to fix)”<sup>5)</sup>고 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임자들의 생각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 책임론’ 혹은 ‘중국 역할론’은 모두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분에 대한 인정(認定)이다. 중국이 2003년부터 시작한 북핵 ‘6자회담(六方會談)’의 개최국 역할, 북한 경제의 지대한 중국 의존도,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파병을 통한 개입 등은 모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투사했거나 향상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거리를 두었으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중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는 북미 모순이 실질적 원인으로, 미국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朝核問題的實質是朝美矛盾,美方應承擔起應有責任)”<sup>6)</sup>고 하면서 미국 측에 공을 넘겼다(2016년 9월 12일). 유사한 발언을 중국 외교부는 2017년 9월 19일에도, 2018년 1월 3일에도, 2018년 1월 26일에도 했다. 중국은 “북핵 문제는 중국 책임이 아니니 중국과 북핵 문제를 연계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 셈이다.

2018년 역사적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이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과 극적인 핵협상을 이끌어낸 25년 만에 개최되었

5) CNN, “Trump: North Korea is China’s problem to fix,” January 6, 2016, <https://www.cnn.com/2016/01/06/politics/donald-trump-north-korea-china-ted-cruz-immigration/index.html> (검색일: 2020년 6월 14일).

6) 新华社, “外交部: 朝核问题的实质是朝美矛盾,” 2016년 9월 12일, [http://www.xinhuanet.com/world/2016-09/12/c\\_1119554308.htm](http://www.xinhuanet.com/world/2016-09/12/c_1119554308.htm) (검색일: 2020년 7월 15일).

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김일성으로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고위급 협상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협상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로 공식화되었지만 김일성이 카터를 만난 뒤 한 달 만에 사망해서 합의안이 오래 가지 못했다. 25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새로운 미국 지도자를 만나 새로운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세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상황이 이전과 달랐다. 첫째,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현직 (incumbent) 지도자를 만난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핵보유국'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이 핵무기를 30기에서 6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sup>7)</sup> 셋째, 중국은 25년 전보다 북한에 대한 더 큰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2019년 12월 발간된 한국무역협회(KITA) 보고서<sup>8)</sup>에 의하면 2018년 북한 대외무역 총량의 91.8%를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종종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환치되어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관련 김정은과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가 고려했을 것은 중국에게 얼마만큼의 '역할'을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일관했고, 이에 북핵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outsourcing)'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살폈듯이, 트럼프 역시 초기에는 전임 미국 지도자들과 유사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

7) *Washington Post*, "North Korea now making missile-ready nuclear weapons, U.S. analysts say," August 8, 2017,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north-korea-now-making-missile-ready-nuclear-weapons-us-analysts-say/2017/08/08/e14b882a-7b6b-11e7-9d08-b79f191668ed\\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north-korea-now-making-missile-ready-nuclear-weapons-us-analysts-say/2017/08/08/e14b882a-7b6b-11e7-9d08-b79f191668ed_story.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8) 무역협회, "북한, 중국 무역의존도 5배 이상 급증," 2019년 12월 2일, [https://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Detail.do?pageNavId=238&pageIndex=2&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01&search\\_mode=&search\\_word=&s\\_date1=&s\\_date2=&form\\_type=&actionName=&sNo=8982](https://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Detail.do?pageNavId=238&pageIndex=2&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01&search_mode=&search_word=&s_date1=&s_date2=&form_type=&actionName=&sNo=8982)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2018년 북한의 무역상대국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은 인도 (1.4%)이며 세 번째는 러시아 (1.3%)이다. 2001년 북한의 무역상대국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일본 (30.1%)이었고 그 다음이 중국 (17.3%), 한국 (8.8%)이었다. 북중무역은 2001년부터 2018년 간 5.3배 정도 증가하여 외교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의 무역변화를 보여준다. 남북교역액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크게 줄었다.

## 2.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한과 ‘딜(deal)’을 시도한 트럼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북핵 문제를 자신의 외교업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로 삼았다.<sup>9)</sup> 그는 김정은과 직접 협상장에서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고 했다. 즉,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아마도 전직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가 국정 경험을 갖지 않아 북핵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자신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임할 수 있었던 듯 하다. 트럼프는 심지어 자기가 김정은과 만나면 “첫 1분 안에(within the first minute)” 김정은과의 협상이 성공할지 아닐지 알아낼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sup>10)</sup> 트럼프는 자신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섰고, 이는 역사적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Singapore Summit)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지난 70여 년 동안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시도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성을 갖는 만큼, 북핵 문제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며 이익상관자인 중국의 역할 공간은 역으로 축소되었다. 트럼프가 이를 애초부터 의도했거나 이것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부재하다. 하지만 그는 중국한테 북한 문제를 풀라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며 협상에 적극성을 보였다. 언론은 ‘차이나 패싱’이란 표현을 만들어 이 보기드문 현상을 지적했다.<sup>11)</sup> 놀라운 것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참여 지

9)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 말해준 것 또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임기 초기부터 관심을 갖게 만든 측면이 있을 것이다. *Wall Street Journal*, “Barack Obama Warns Donald Trump on North Korea Threat,” November 22, 2016, <https://www.wsj.com/articles/trump-faces-north-korean-challenge-1479855286> (검색일 2020년 11월 22일).

10) *Wall Street Journal*, “Trump Says He’ll Know If North Korean Summit Will Succeed ‘Within the First Minute,’” June 9, 2018, <https://www.wsj.com/articles/trump-says-hell-know-if-north-korean-summit-will-succeed-in-the-first-minute-1528559569> (검색일: 2020년 9월 14일).

11) 이에 관한 언론 보도는 다음 등을 참조. 『연합뉴스』, “中, ‘차이나 패싱론’ 재접화에 당혹… “중국과 소평가 안돼”, 2018년 5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9068200083> (검색일: 2020년 7월 8일); 『주간조선』, “‘차이나 패싱’ 현실화 병어리 냉가슴 앓는 중국,” 2018년

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녔던 미국이 중국이 배제되기를 선호했다는 것이다.<sup>12)</sup> 대표적인 것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나온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에 참가하는 국가를 정하는 문제였다. 즉, 미국이 사실상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빠지거나, 혹은 적어도 중국이 전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를 원한 것이다. 이는 서두에서 제시한 ‘중국 역할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즉,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중국의 그러한 영향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에서 그 과정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지, 아니면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지에 대해 미국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혹은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로 단독 해결이 가능하다고 과신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6월 11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13&nNewsNum=002511100006> (검색일: 2020년 3월 18일); 『한겨레』, “차이나페싱 우려…중국, 북-중 관계 어떻게 풀까?” 2018년 3월 16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36456.html#csidx47281532857121687ff4651177d3855> (검색일: 2020년 3월 19일). 영어권 매체 관련 보도는 다음 등을 참조. *The Guardian*, “Trump confirms face-to-face talks with Kim Jong-un in Singapore in June,” May 10, 20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y/10/summit-between-donald-trump-and-kim-jong-un-will-take-place-in-singapore-report> (검색일: 2020년 10월 4일); *BBC*, “Trump-Kim Jong-un summit set for Singapore on 12 June,” May 10, 2018,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074257> (검색일: 2020년 9월 27일); *VOX*, “It’s official: Trump is meeting Kim Jong Un in Singapore on June 12,” May 10, 2018, <https://www.vox.com/world/2018/5/10/17339388/trump-kim-jong-un-singapore-june-12-north-korea> (검색일: 2020년 9월 5일).

- 12) 미국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국으로 제안했으나, 김정은이 중국이 제외된 남·북·미 간종전선언 체결에 부정적이어서 정상회담에 담기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북·미 3자가 아닌 중국이 포함된 남·북·미·중 4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시진핑이 김정은과 회담을 한 후 나왔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도경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통일연구원, 2019), pp. 27-50; 유현정, “‘종전선언’ 관련 북·미간 입장 차이와 중국 변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18-1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13) 당시 한국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던 일부 한국 학자들 중에도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에 우려를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의견은 비공개 회의 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열렸던 공개 정책포럼 등에서도 피력되었다. 즉,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데 있어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듯하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문제는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어, *South China Morning Post*, “Korean peace declaration ‘is possible without China, but would be weaker,’” June 6, 2018,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149583/korean-peace-declaration-possible-without-china-would> (검색일: 2020년 9월 20일).

### 3. ‘차이나 패싱’에 대한 중국의 반응

본고에서 다루는 ‘차이나 패싱’ 담론은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당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고, 둘째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2018년 2월 8일 사설에서 “남북 관계가 좋게 발전하는 시기에 중국 일부 언론이 개별적 전문가들의 주제 넘은 논조를 펴냄으로써 남의 잔치 분위기를 흐려 놓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남의 민족 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사’로 나선 판국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테니 중국한테는 빠지라고 한 셈이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빠른 변화 속에 자신이 ‘패싱’당하는 듯 하자 신속하게 전략을 바꾸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4월 19일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作為半島問題當事方, 中方願為此發揮積極作用)”<sup>14)</sup>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스스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표정(標定)한 점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스스로의 위치를 규정함에서 있어 이전에는 ‘건설적(建設性)’ 역할을 하는 국가 혹은 ‘독특(獨特)’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스스로를 표현했는데, 이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외교부 기록을 보면 중국은 과거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當事方)’를 열거하면서 이에 북한(朝), 미국(美), 한국(韓)을 거론하였지만 스스로를 당사자 범주에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직접당사자’들이 용감하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我們希望半島問題的相關直接當事方應勇於承擔起應有的責任, 發揮應有的作用)”라고 제3자적 관점에서 촉구하기도 했다.<sup>15)</sup>

중국은 또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식하는 것

14) 澎湃, “外交部: 中方支持半島早日結束戰爭狀態, 願為此發揮積極作用,” 2018년 4월 19일,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085212](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085212) (검색일: 2020년 4월 15일).

15) 外交部, “外交部: 半島問題相關直接當事方應勇於承擔起責任,” 2017년 8월 30일, <http://world.people.com.cn/n1/2017/0830/c1002-29505039.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을 극구 고사(固辭)해왔다. ‘당사자’가 되면 문제의 ‘책임’도 져야 하는데 중국은 자기는 당사자가 아니고 미국이 당사자이니 미국이 북핵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했다. 대신 중국은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북핵 6자회담의 개최국 역할이 그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은 자신이 내놓은 북핵 중재안인 ‘쌍궤병행(雙軌並行)’ 및 ‘쌍중단(雙中斷)’을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스스로도 주적심허(倣賊心虛, ‘도둑이 제 발 저리다’)했을 논리적 모순을 감수하고서도 이제는 자신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표방한 것이다.

### III. 북중 정상회담을 통한 중국의 견제

김정은과 시진핑은 각각 2011년 12월, 2012년 11월에 집권한 뒤,<sup>16)</sup> 수년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3월에서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이 그 이전에 평양을 방문했던 것 역시 10년 전인 2009년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을 때였다. 당시 김정은(1984년생)은 25살이었는데, 두 사람 간에 만남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중 교류에 있어 다년간의 공백기가 있는 후 가진 첫 정상회담 연회에서 시진핑은 사회주의 국가인 양국 관계를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써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sup>17)</sup> 첫 대면인데 마치 오랜된 친구 사이인 것 같은 표현을 썼다. 피로써 맺어졌다는 ‘혈맹’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냉전 시대 북중관계를 형용하던 대표

16) 김정은은 2011년 12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최고지도자가 되었고, 시진핑은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 오른 후 2013년 3월 국가주석 지위도 갖게 되었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정치제도의 특징상 ‘총서기’ 자리로 이미 실제적으로 중국 ‘최고지도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관계 영역이 확대되면서 영어로 ‘president’로 번역되는 ‘국가주석’ 칭호를 더한 시기를 기준으로 시진핑의 임기를 2013년 3월부터 보기도 한다.

17) *DPRK Today*, “WPK Friendship Visiting Group Meets Xi Jinping,” May 18, 2018, <https://kcnawatch.org/newstream/1528033322-897621042/wpk-friendship-visiting-group-meets-xi-jinping/> (검색일: 2019년 12월 17일); *KCNA Watch*, “연회에서 하신 습근평동지의 연설,” March 28, 2018, <https://kcnawatch.org/newstream/1574344207-655970211/%ec%97%b0%ed%9a%8c%ec%97%90%ec%84%9c-%ed%95%98%ec%8b%a0-%ec%8a%b5%ea%b7%bc%ed%8f%89%eb%8f%99%ec%a7%80%ec%9d%98-%ec%97%b0%ec%84%a4/> (검색일: 2019년 12월 17일).

적인 어구였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무척 생경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가까운 사이였다면 바로 이웃이면서 지난 수년 동안 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가는 질문도 생길 법하다.

## 1.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과 냉전 시대 용어의 부활

### 1) 한국·미국이 김정은과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하자 먼저 선수를 친 중국

2018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침내 취임 후 첫 해외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가짐으로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누구도 중국과 상의 없이 한반도 문제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해 4월 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월 말에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새치기’를 하듯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가 한국과 미국의 주도에 의해 현상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발 빠른 보폭을 보였다. 중국이 보는 한반도 지정학 전략에서 볼 때, 트럼프의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선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패싱’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이 제외된 상태에서 북핵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 한반도 지정학에서 ‘중국 역할론’의 하향 조정은 중국에게 불리하다.

중국의 학자들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등한시하고 북핵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8)</sup> 한 중국 국가연구기관의 한반도 전문가는 만약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소외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중국은 ‘휩방(打亂)’을 놓겠다고 단언 하였다.<sup>19)</sup> 중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세력권(勢力圈, sphere of

18) 공교롭게도 당시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무단 진입했다. 무려 네 시간 동안 중국의 군용기는 한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한국 영토를 근접 비행하고 돌아갔다. 이러한 무력시위는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4.27 남북정상회담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19) 필자의 인터뷰 (베이징, 2018년 3월).

influence)을 한국과 미국이 존중해 줄 것을 원하고,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북한 관련 결정 사항에 있어 중국을 핵심 일원으로 여겨주기를 바랐다. 만약 중국이 무시되거나 소외되게 된다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습적인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를 북한문제에 대한 ‘결정권자’임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두 번째 회담은 중국 해양 도시 다롄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은 북중이 ‘운명공동체’이며 ‘변함 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표현하며 북중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과시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이었다. 시진핑은 다짐을 주듯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려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sup>20)</sup> 한국의 한 언론 매체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말 이래 처음으로 시진핑이 북중관계를 표현하는데 있어 ‘순치의 관계’라는 냉전시대의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sup>21)</sup> 글의 저자는 시진핑이 “비핵화 판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sup>22)</sup>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고 본 것이다.

## 2.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공개 불만을 터뜨린 트럼프

시진핑이 냉전 시기 용어를 부활시킨 것은 만약 트럼프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시진핑이 김정은의 정치적·경제적 지지를 변함없이 보내주겠다는 의미

20) *KCNA Watch*, “김정은위원장 중국 대련시 방문, 습근평총서기와 또다시 상봉,” May 8, 2018, <https://kcnawatch.org/newstream/289385/%c2%b7%ea%b9%80%ec%a0%95%ec%9d%80%ec%9c%84%ec%9b%90%ec%9e%a5-%ec%a4%91%ea%b5%ad-%eb%8c%80%eb%a0%a8%ec%8b%9c-%eb%b0%a9%eb%ac%b8%ec%8a%b5%ea%b7%bc%ed%8f%89%ec%b4%9d%ec%84%9c%ea%b8%b0%ec%99%80-%eb%98%90/> (검색일: 2019년 12월 17일).

21) 주북한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등을 보면 북중 친선을 기념하는 한국전쟁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에서 북중관계를 여전히 ‘혈맹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쓰인 표현이라 할 것이다. 한국전쟁 70년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 입에서 ‘혈맹관계’ 표현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외교부 역시 근년 들어 북중관계를 ‘정상적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고, 이는 북중관계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22) 『조선일보』, “北과 순치관계라는 시진핑, 비핵화 판 흔들고 있다,” 2018년 5월 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9/201805090026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9/2018050900269.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확보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협상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트럼프와 협상을 앞두고 있던 김정은은 북한이 중국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sup>23)</sup> 이러한 배경 하에서 김정은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비협조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는 시진핑이 모종의 궤방을 놓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였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후 그의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강경하게 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주 전 김정은이 갑작스레 중국으로 가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로 만난 사실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sup>24)</sup>

중국 내 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은 당시 변칙적인 외교를 구사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기적 만남에 겉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내심 걱정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미국이 김정은에게 자본주의적 유인책을 제공해 원산에 ‘트럼프 타워(Trump Tower)’가 들어설 것을 우려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서서히 ‘친미’로 기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 역시 북미회담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는 했지만 협상이 너무 잘 되어 중국이 생각하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중국 내에는 북미협상과 관련해 트럼프가 ‘숨은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은 바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갈수록 경쟁관계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라 믿는 이들이 있었다. 비록 북한과 미국이 공식적인 동맹이 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 이러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북미 협상을 둘러싼 중국의 미묘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23) KCNA Watch (2018).

24) *South China Morning Post*, “Donald Trump Says North Korea Could Have Been ‘Influenced’ by Xi Jinping to Turn on US ahead of Talks with Kim Jong-un,” May 18,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2146666/donald-trump-says-north-korea-could-have-been>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 IV.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불안

### 1. 시진핑의 '사회주의 결속' 강조

김정은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회담(2018년 6월 12일) 전 중국을 미리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고, 싱가포르 회담 후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 의제가 '북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라고 밝혔다.<sup>25)</sup>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가 이고 이는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각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성과(符合各方利益和國際社會期待的積極成果)"를 거두었으며 "양측이 정상회담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一步步扎實落實)'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중대 국면(重大局面)'을 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sup>26)</sup> 회담에 대한 만족을 표한 것이다.<sup>27)</sup> 이에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북중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3가지(三個不變)'를 약속했다. 첫째, 북중관계에 대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에 대한 지지; 둘째, 북한 인민들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우정(友好情誼); 셋째,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중국의 지지이다.<sup>28)</sup> 중국 언론은 시진핑이 제시한 '세 가지 약속' 중 특히 북한을 묘사함에 있어 '사회주의조선'이라 한 표현에 주목했다.

시진핑은 투철한 사회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sup>29)</sup>

25) 外交部,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8년 06월 19일, <https://www.fmprc.gov.cn/web/tpxw/t1569948.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26) 新华网,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8년 6월 19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6/19/c\\_1123005983.html](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6/19/c_1123005983.html) (검색일 2020년 8월 19일).

27) 본고가 다루지 않은 부분은 이러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의 북한의 입장과 시각이다. 북한 또한 미중 경쟁 사이에서 일관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시진핑의 코로나 방역을 높이 평가한 것은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와중에서 북한이 중국편을 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중국 편들기'는 화웨이, 사드, 홍콩 문제 등 최근의 미중 갈등 현안마다 북한이 보여준 일관적인 행태이다. 추후 연구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고의 주제를 짚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28) 外交部,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8년 6월 19일, <https://www.fmprc.gov.cn/web/tpxw/t1569948.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29) *New York Times*, "4 Takeaways from Xi Jinping's Speech Defending Communist Party Control," December 18, 2018, <https://www.nytimes.com/2018/12/18/world/asia/xi-china->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이름과 ‘사회주의’ 단어가 들어간 소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포하였다. 트럼프의 당선 후 미국 사회 내부의 포퓰리즘,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대외정책에서의 고립주의 노선 경주,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의 몰락 그리고 수퍼파워로서 미국의 힘의 근간이었던 동맹체제의 약화는 시진핑으로 하여금 미국 국력이 쇠퇴하고 있고, 역으로 중국 사회주의 발전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5월 시진핑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탄생 200주년 연설에서 마르크스의 정치노선을 고수해 온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완전히 옳았다(完全正確)”고 선포하였다.<sup>30)</sup> 시진핑 사상은 과거 ‘사회주의 = 가난’이라는 통념을 탈피하여 ‘부강한 사회주의’라는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중국몽’으로 이를 구체화하려 한다. 중국몽은 부강한 나라를 추구한다. 시진핑의 강대국 열망은 신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서방을 능가하는 ‘발달한 사회주의’ 실현에 있다. 시진핑은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사상에 남다른 자부심을 자주 표하곤 한다.

그러한 시진핑이 북한을 ‘사회주의조선(社會主義朝鮮)’이라고 지칭하며 북중관계의 우의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의 정치제도가 사회주의이니 당연히 ‘사회주의조선’라고 했겠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중국 외교부나 북중관계 외교사에서 중국 지도자가 의외로 자주 사용한 표현이 아니었음을 주목하게 된다. 특히 ‘사회주의’와 ‘조선’ 이 두 단어를 직접 붙여쓴 경우는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 과거 기록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중국학자들도 시진핑이 김정 은과의 회담에서 유난히 ‘사회주의’를 자주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했다.<sup>31)</sup> 북한도 중국처럼 잘사는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2019년 6월 평양에서 시진핑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견지하는 것은 북중관계의 본질적 속성(堅持共產黨領導的社會主義國家

speech-takeaway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30) 新华网, “习近平: 在纪念马克思诞辰200周年大会上的讲话,” 2018년 5월 4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04/c\\_1122783997.html](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04/c_1122783997.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31) 저자의 인터뷰 (베이징, 2019년 다수 방문).

是中朝關係的本質屬性)<sup>32)</sup>이라며 한층 더 강조된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표출했다. 이에 김정은은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북중 우호 유지의 핵심임을 확인했다”고 화답했다.<sup>33)</sup>

## 2. 시진핑의 ‘신시대 북중관계’ 선포

중국 외교부 기록에 따르면 시진핑은 중국 해양 도시 다롄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2018.5.7.~8.)에서 ‘신시대 중북관계(新時代中朝關係)’의 4대 원칙을 천명했다. 여기서 또다시 ‘사회주의’가 강조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sup>34)</sup>을 지닌다. 첫째, 중북 전통적 우의는 양측의 공통된 귀중한 자산(寶貴財富)이며, 중북 우호협력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의 확고부동한 방침(堅定不移的方針)이자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唯一正確選擇)이다. 둘째, 중국과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국가(中朝同為社會主義國家)이고 양자 관계는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단결과 협력, 교류의 상호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양당(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고위층 교류는 양자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역할을 하며, 양자는 상시 왕래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이해를 증대시키고 상호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넷째, 민간 우호기반을 다지는 것이 북중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길이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양국 인민의 교류를 강화하고 북중관계 발전에 좋은 민의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시진핑이 주창하는 북중관계 ‘신시대’의 전제조건은 양국 모두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견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반복적인 ‘사회주의’ 강조는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과 중국이 각자 ‘친미 진영’, ‘친중 진영’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 논리에 의거하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인 북한은 당연히 중국 진영에 속하는 것이다.

32) 中央廣播電視總台央視網, “习近平以三“新”续写中朝友谊新篇章,” 2019년 6월 13일, <https://news.cctv.com/2019/06/23/ARTIm8jfZvflydDXmjZX0QLc190623.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33) 外交部,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9년 6월 20일, <https://www.fmprc.gov.cn/web/tpxw/t1674111.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34) 新华网,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在大连举行会晤,” 2018년 5월 8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5/08/c\\_1122802575.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5/08/c_1122802575.htm) (검색일: 2019년 9월 13일).

### 3.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

트럼프-김정은 북미 협상 시기에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입장을 내놓았다. 첫째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미국이 아닌 북한 편을 드는 것이었다. 하노이 회담 한 달 전에 베이징에서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조선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측(미국을 가리킴)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sup>35)</sup> 중국은 또한 그 두 달 전 러시아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정도에 비례해 유엔 대북제재 강도도 ‘조정’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중국은 회담 결렬 책임이 미국측에 있다는 북한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대립의 큰 기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 측 보도에 의하면, 당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년여 동안 북한은 국면 긴장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관련국(미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sup>36)</sup>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는 북한 편을 들었다.

### 4. 김정은에 대한 ‘사회주의 교화’

트럼프가 김정은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시키던 동 시기에 시진핑 역시 김정은과 관련하여 일련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바쁜 일정을 가졌다. 중국이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다섯 차례의 연속 정상회담을 가진 국가는 현재까지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의 중국 측 정부 발표와 보도, 북한 측 발표와 보도 그리고 기록영화를

35)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2019년 1월 10일.

36) 外交部,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9년 6월 20일, <https://www.fmprc.gov.cn/web/tpxw/t1674111.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전수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흥미로운 것이 발견된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핵 문제만 논의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진핑은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영향을 심으려 했다.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교화를 시도했고, 이를 과장된 북중 특수한 우호를 표현하는 수사법으로 승화시켰으며, 이를 다시 북중 간 결집이 서로 간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김정은에 대한 점진적인 영향력을 심으려 했다.

시진핑의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차 회담에서 5차 회담으로 가면서 시진핑의 표현들을 김정은이 따라하기(‘shadowing’) 시작하고, 특히 시진핑이 강조한 ‘사회주의가 북중우호의 핵심’임을 김정은이 가장 최근의 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읊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지난 4차례의 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사회주의야말로 조중친선의 변함없는 핵이며 힘을 합쳐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중 친선의 특수성과 불패성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sup>37)</sup>라고 했다. 김정은이 여기서 “확인했다”라고 다짐적 표현을 쓴 대목은 주목할 점이다. 시진핑의 생각을 ‘내재화(internalization)’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언급한바,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서도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뒤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협상에 임하는 김정은 태도 변화에 ‘시진핑 배후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이는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 심기 노력이 ‘학습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은 또한 김정은에게 선대(先代) 북중 교류 역사를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이는 정서적·심리적 연대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1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본인의 부친 시중신(習仲勳)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역전에서 맞이했다는 것을 소개했고, 4차 방중 때는 김정은을 유서깊은 북경반점(北京飯店)으로 이끌었다.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이 이전에 중국을 방문할 때 애용했던 곳이다. 외교가에선 시진핑의 이 모든 배려가 “한 편의 잘 짜인 각본 같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진핑은 이를 통해 “대를 이어” 북중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메시지

37) 로동신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2019년 6월 21일.

를 던졌다. 주목할 것은, 1차 정상회담 때만 해도 김정은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비핵화 협의’에 중심을 둔 발언이고 그가 했던 북중 우호 관련 발언은 그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발전” 정도였다. 하지만 다롄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부터는 김정은도 북중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하나의 운명’, ‘한 집안 식구’, ‘형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이처럼 ‘운명’, ‘형제’ 등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시진핑이 먼저 사용한 이러한 과장된 표현들에 김정은도 ‘눈높이’를 맞춰 따라가는 동화(assimilation)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이었던 김정은은 동 기간에 이렇게 본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시진핑에게 신뢰를 형성하게 된 듯하다.<sup>38)</sup> 2019년 1월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김정은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이는 ‘중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북미협상에 있어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을 북핵 해결 과정에서 배제하려던 미국의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다.

## 5. 북한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

2019년 6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거기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무역전쟁 와중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었다. 중국은 시진핑이 G20정상회의를 참여할 지에 대해 열흘 전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 불만이 쌓인 트럼프는 6월 15일 “만약 시진핑이 참석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달 안에 몇 십억 달러를 거두게 될 것이다”<sup>39)</sup>고 경

38)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 이것은 오히려 김정은이 시진핑의 ‘내재화’, ‘동화’ 노력을 꿰뚫어보고 전략적 적응(adaptation)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9) 관련 기사. 新华网, “习近平将出席二十国集团领导人第十四次峰会,” 2019년 6월 23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6/23/c\\_1124659526.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6/23/c_1124659526.htm)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Bloomberg, “Trump says ‘it doesn’t matter’ if Xi agrees to meeting at Osaka G20 summit,” June 14,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6-14/trump-says-it-doesn-t-matter-if-xi-agrees-to-meeting-at-g-20>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고하였다. 중국은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격적인 발표를 내보냈다. 시진핑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고, 중국 정부는 시진핑이 북한에서 돌아온 당일 6월 23일 마침내 시진핑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시진핑의 방북 시기는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였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시진핑의 방북 관련 실무적 준비를 2019년 1월에 이미 마쳐 놓고, ‘언제든’ 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끔 준비해 놓고 있었다.<sup>40)</sup> 중국은 방북을 위한 최적화된 시기를 모색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고려한 한 것은 방문 대상국인 북한의 사정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미국을 의식해 방북 시기가 결정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6월 중국 정부가 시진핑의 방북 일정을 발표하자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시 주석의 방북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이는 두 정상이가 그 해에 가진 첫 통화였다. 트럼프는 종종 “시진핑은 나의 좋은 친구”<sup>41)</sup>라고 했는데 그 좋은 친구와 그 해 첫 통화를 그때(6월) 가진 것이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시진핑의 방북 발표가 나온 후였다. 그것이 트럼프의 관심을 끈 것이다.<sup>42)</sup>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은 서울에 도착해 북한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트럼프는 G20 회의 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가 한국에서 다시 김정은을 만날까 하는 큰 기대가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전격적으로 시진핑의 북한 방문을 발표한 것은 중재자의 역할이기보다는 앞서의 북중 정상회담처럼 트럼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새치기’ 전술로 해석된다.

40) 중국 정부 인사와의 인터뷰 (2019년).

41) 트럼프는 이를 더 한층 강조하여 시진핑이 “매우, 매우 좋은 친구”(a very, very good friend)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Signing of the 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 January 15, 20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u-s-china-phase-one-trade-agreement-2/> (검색일 2020년 9월 2일).

42)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은 보도된 것보다 훨씬 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수전 손턴(Susan Thornton)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가 취임 후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을 가졌던 마라라고에서 “두 정상간의 ‘대부분의 대화(most of the conversations)’가 북한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무역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었다”고 술회했다.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Sinica Podcast과의 인터뷰, 2020년 8월 14일.

## 6. ‘북한의 미국’이 되려는 중국

트럼프는 G20 회담 후 한국을 방문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회동을 갖는다. 그 회동에 대해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지지한다”고 밝혔다(2019년 7월 1일). 중국은 매번 북한과 미국이 가지는 회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덧붙이길 “최근 시진핑 주석이 조선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했다. 중국의 막후 역할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마치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에게 트럼프와 만나라고 설득한 뉘앙스로 언론은 해석했다. 중국 관방언론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과연 시진핑 주석 역시 평양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신화통신사 보도(6.20)에 의하면 시진핑은 “지난 1년간 한반도 문제는 대화 해결의 밝은 전망을 되살려 국제사회의 공감과 기대를 얻었다”고 운을 뗐 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積極評價... 推動半島無核化作出的努力)”하고, “국제사회는 북미 대화가 진전되고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國際社會普遍希望朝美談下去並談出成果)”고 하였다.<sup>43)</sup>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국가를 견지하는 것은 북중관계의 본질적 속성이다(堅持共產黨領導的社會主義國家是中朝關係的本質屬性)”라고 한층 더 강조된 사회주의 연대의식을 표출했다. 하지만 시진핑이 평양에서 한 발언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시진핑이 평양에서 북한 핵문제 그리고 북중 양자관계에 대해서 한 발언이다. 그것은 첫째,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 관점(戰略高度和長遠角度)에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을 시도했던 트럼프도 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한 중국학자는 “이는

43) 新华网,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9년 6월 20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6/20/c\\_1124650674.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6/20/c_1124650674.htm) (검색일: 2020년 9월 8일).

시진핑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고 풀이했다.<sup>44)</sup> 둘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政治解決) 추진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언론이 후에 폭로한 일명 ‘코피 작전(bloody nose)’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중국 정부가 자주 쓰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란 표현도 시진핑의 입을 통해 나왔다. 핵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북한이 느끼게 될 ‘안보 불안’이 중국은 이해된다는 것이다. 다시 북한 편을 두둔한 것이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북한과 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정치적 배려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동질의식을 공유하는 중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한 동감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걱정(合理安全和發展關切)”을 해결하는 데 중국은 ‘힘이 닿는 최대한(力所能及)’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기존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 경제 발전을 돕겠다고 한 발언은 많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에 더해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것이 결국은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인데, 평양에 간 시진핑은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를 중국이 북한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대안’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의 발언은 여기에 ‘힘이 닿는 한(力所能及)’이란 극대화된 표현으로 강조되었다. 혈맹이라 불리는 북중관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과거에 원자바오(溫家寶) 전 중국 총리가 2009년 10월 평양을 방문해서 동일 표현을 썼던 것이 나온다. 2009년은 북중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10년 만에 부활한 표현이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建設性作用)을 하겠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중국이 최근에 줄곧 얘기해 왔던 바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

44) 저자의 인터뷰.

황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강조한 것은 좀 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상을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비록 중국도 미국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미국과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향후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의 정책이 충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한 중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7.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방안(中國方案)’의 강조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중국식 해법인 소위 ‘중국 방안(中國方案)’<sup>45)</sup>을 제시한 사건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날로 향상시키고 있는 중국이 북한 문제와 같은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관여를 하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제안하는 중국식 해결방법인 ‘중국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리더십을 고취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국 방안인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並行)’이 북핵 문제를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엔 북한의 안보문제 해결하려는 대담한 중국식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공세적 외교가 북핵 문제에도 발현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이 설정한 방법, 즉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덜어주어야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에 중국이 무게를 둔 것이고 북한 편을 든 것이다.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과 근본적인 철학적 접근법이 다르다. 정리하자면, 중국이 미국과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근년 들어 경제적·군사적 부상으로 더욱 자신감을 갖게되었고, 특히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외교 기조와 연관있다. 기존 서방이 주도한 세계 질서와 차별되는 중국

45) 참고로 중국 정부는 이를 영어로 ‘Chinese proposition’ 혹은 ‘Chinese proposal’로 번역한다. 다음을 참고. China.org.cn, “习近平主席在联合国日内瓦总部的演讲,” January 25, 2017, [http://www.china.org.cn/chinese/2017-01/25/content\\_40175608.htm](http://www.china.org.cn/chinese/2017-01/25/content_40175608.htm) (검색일: 2019년 8월 19일).

식 국제 거버넌스, 국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식 해결 법을 내놓는 소위 ‘중국 방안(中國方案)’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연히 기존 국제사회의 리더였던 미국의 위상 약화를 추구하게 된다. 상술한대로 그 배후의 더 큰 배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구도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게 심지어 군사교류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째는 시진핑 방북에 마오화(苗華) 중국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政治工作部) 주임이 동행한 것이다. 마오화는 인민해방군의 최고 계급인 상장(별 3개)이며, 군의 인사와 선전을 책임진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 군 인사가 동행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기도 한데 이것이 특히 관심 받는 이유는 과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중 사이에서 공개적 군사교류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런 고위급 군부인사의 방문도 없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군사 분야 교류를 시작한다는 확실한 정치적 신호를 준 것이다. 마오화의 북중 정상회담 동행으로 보여준 정치적 상징성이 실제적인 군사부분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지는 추가적 관찰의 대상이다.<sup>46)</sup>

종합하면, 시진핑은 북한에 대한 안보를 중국이 책임져 줄테니 안심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임하라는 ‘뒷배’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모두에서 언급한 ‘시진핑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판문점 회담에 나가게 한 것’이란 가설에 얼핏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인다. 마치 시진핑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중재’한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막후 역할’이 ‘중재’는 아니다. 중국이 판문점회담을 직접 중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한 참모부’ 회의를 한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46) 이것이 당장 북한과 중국의 군대가 한미간처럼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군인 연수 프로그램, 북한군의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참관 등, 조용한 군사교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마오화(苗華)의 이름도 중국 관방언론이 공개한 시진핑의 수행원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 V. '중국 역할론' 기대의 한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대북 제재의 실질적 효과성이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압력을 주지만 결국 그러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긍정적 결과에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러한 대북 경제 제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거나, 할 의향이 없거나, 하는 시늉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 효과는 반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효과는 있겠지만, 관건은 그러한 효과가 충분히 강해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압박 효과가 있고 그것이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할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degree)'의 여부인지의 문제다. 팔을 꼬집는 정도의 통증도 분명 통증이지만 팔다리가 떼어질 것 같은 통증과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매번 '역대 최고', '가장 엄중한' 조치라는 수식어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중국의 '완전한' 이행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미국 측 인사들에 의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장 열심히 한 때는 2017년기 하반기다. 그 때가 중국이 '진짜로' 대북 제재를 했던 시기라는 말도 나온다. 당시 중국 대북 제재는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대로 이것이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데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 특히 몇 개월 후 2018년 3월 시진핑이 김정은과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중관계를 회복하였고, 중국의 대북 제재 효과는 그로 인해 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김정은과 상봉에서 시진핑은 북한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관계라고 했다.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2018년 봄부터 15개월의 기간 동안 시진핑은 김정은과 다섯 차례의 밀도 높은 정상회

담을 최고의 격식과 만찬을 곁들여 가졌다.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 회담 기간과 겹친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전후에 회담 성과가 있기 전에 사전 제재 완화 조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제재 효과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관건인데 북한과 다섯 차례의 성대한 정상 회담을 가진 중국이 그 기간에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역시 맞지 않아 보인다.

돌이켜보면, 종종 ‘정략 결혼’으로 묘사되던 북중관계가 세간의 온갖 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상호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한 북중 우호관계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특히 미중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되감에 따라 북한을 같은 사회주의 진영인 중국쪽으로 견인해 두려는 중국의 전략 지향(志向)은 더욱 확고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 사회주의적 연대를 강화했던 냉전시대와 유사하게, 양국 모두 현재 미국을 상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핵무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시진핑은 트럼프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sup>47)</sup> 시진핑이 북중관계를 “피로써 맺어진 친선”이라고 묘사한 것은 ‘순치관계’와 함께 냉전시기 때 북중관계를 형용할 때 쓰던 대표적인 표현이다. 2018년 3월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한 전직 관료는 김일성-마오쩌둥 시대의 역사를 떠올리며 북중관계가 ‘신(新)혈맹관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48)</sup> 중국에서는 2000년 초반 이후 북중관계를 혈맹보다는 ‘정상국가 간의 관계(正常的國家關係)’<sup>49)</sup>로 정의해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국이 다시 혈맹관계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역시 ‘미중

47) 미중 ‘무역전쟁’이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는 미중 갈등의 한 영역이며, 본질은 미래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9년 11월 현 미중 갈등을 “냉전 초입단계”(foothills of a new Cold War)로 규정했다 *Bloomberg News*, November 21,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1-21/kissinger-says-u-s-and-china-in-foothills-of-a-cold-war>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48) 『연합뉴스』, “이종석 “북중 ‘신혈맹관계’ 진입…3차북미회담 연내 재개될 것”, 2019년 6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051900001> (검색일: 2020년 7월 19일).

49) 예를 들어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보내면서 중국관계는 “정상 국가 간 관계”라고 했다. 이는 전통적인 특수혈맹관계에서 점차 (이익에 기반한) 정상 국가 간의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참고: *中国新闻网*, “外交部: 中朝是正常国家关系 坚决反对朝鲜核试验”, 2013년 3월 8일, <http://www.chinanews.com/gn/2013/03-08/4628424.shtml> (검색일: 2020년 9월 6일).

갈등'이 그 배후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신냉전'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같은 북중관계의 급속한 교류와 발전은 비핵화를 모색하는 한국과 미국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VI. 한국 및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

본고에서는 “중국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이고, 지정학과 지경학적으로 수천 년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왔다. 한반도에 벌어진 전쟁에 자국의 군인을 파견하기도 했다. 한반도에 문제에 중국이 나름대로 지분이 있다고 느끼는 것도 정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북핵 위기로 대표되는 북한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중국 역할론’ 사유(思惟)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유효하다. 이는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촉발된 미중관계 악화의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2013년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으로 북핵 협상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평가했다.<sup>50)</sup>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요소’가 작용하고 있고 이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할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즉, ‘중국몽’을 이루려고 한다.<sup>51)</sup> 이 때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글로벌 패권국가가 되려고 한다.

50) 외교안보연구소, “2013-2017 중기국제정세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3-01 (외교안보연구원, 2013), [http://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3/2013\\_2017\\_%EC%A4%91%EA%B8%B0%EA%B5%AD%EC%A0%9C%EC%A0%95%EC%84%B8%EC%A0%84%EB%A7%9D.pdf](http://m.korea.kr/expertWeb/resources/files/data/document_file/2013/2013_2017_%EC%A4%91%EA%B8%B0%EA%B5%AD%EC%A0%9C%EC%A0%95%EC%84%B8%EC%A0%84%EB%A7%9D.pdf) (검색일: 2020년 12월 4일).

51) Xi Jinping, “Securing a Decisive Victory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in All Respects and Strive for the Great Succes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Delivered at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ctober 18, 2017,” *Xinhua News Agency*, December 18, 2019, [http://www.xinhuanet.com/english/special/2017-11/03/c\\_136725942.htm](http://www.xinhuanet.com/english/special/2017-11/03/c_136725942.htm)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중국은 비록 미국보다 국력에서 밀리지만, ‘버티기 작전’으로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바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화’ 전략이다.<sup>52)</sup>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중일 3국, 동남아, 유럽으로 나뉜다. 이를 3개 ‘전선(戰線)’으로 삼아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이란 낙관론으로 선회했는데 일본과의 급격한 관계 개선이 계기가 됐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중국 편으로 전인할 수 있고, 대중국 봉쇄에도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을 배제한 중국 중심 세계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난관에 부딪힐테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은 ‘상상하기도 힘든 위협’에 대응해 ‘공산당 통치’와 ‘경제개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산당 집권을 강화하면서 경제 개방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선언으로 이해된다.

## 1. 미국의 중국정책 ‘리셋’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 20일 「대중국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공표하였다.<sup>53)</sup> 이 보고서는 본문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중관계 기존의 ‘2C론’에서 ‘cooperation’이 빠지고 ‘competition’만 남은 것이다. 이 문서는 ‘냉전’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중 신냉전의 ‘공식 선포(formal announcement)’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VOA가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 사실상 신냉전 선포”라는 제목(2020.5.22.)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은 이 보고서의 해설판인 셈이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지난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왔지만,

52) 이 표현은 2019년 본고의 저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시 중국측으로부터 들었던 표현이다. 당시 중국측 인사는 이 부분을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globalization without the U.S.’라고 표현했다.

53)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6, 2010,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 2020년 12월 4일).

40여년이 지난 현재 중국공산당은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Challenges to Our Values)’ 부분이다. 이는 미중 갈등의 성격이 ‘가치 갈등’이라는 것을 적시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을 평소처럼 ‘President Xi’라고 하지 않고 ‘General Secretary Xi’, 즉 ‘공산당 총서기’ 호칭으로 부른 것도 미국내 중국전문가그룹이 제기한 호칭관련 문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중국이 공산국가임을 표시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이란 주어가 들어갈 자리에 ‘regime’이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고서는 시진핑의 2013년 내부 발언인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资本主义最终消亡、社会主义最终胜利)”<sup>54)</sup>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6년이 지난 2019년 4월에서야 공개되었다. 미국은 중국이 걸로로는 개방된 글로벌 무역체제를 주창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오랫동안 서방과 ‘이데올로기 경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이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를 세계에 조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방의 민주주의보다 ‘더 잘 작동(functioning better)’하는 정치체도로서 장려하고 있다는 미국의 대중국 평가를 제시했다. 미중 간 이러한 근본적 이념 차이는 냉전시대를 연상케 하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어떤 정치체재를 갖게 될 지에 관한 양국의 ‘북한 미래상’에도 서로 다른 전략을 의미하게 된다.

## 2. 트럼프와 시진핑이 꿈꾸는 서로 다른 ‘북한의 미래’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풍요로운 민주국가로 만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한국과 같은 수준의(on par with South Korea)’ 번영을 누리게 해줄 비핵화 해법을 수용하도록 재촉하였다.<sup>55)</sup> 미국의 해외 개입

54) 시진핑 2013년 발언 원문 “资本主义最终消亡、社会主义最终胜利.” 출처: “关于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几个问题,” 求是, 2019.03.31.

55) *Wall Street Journal*, “U.S. Holds Out Promise of Economic Prosperity for North Korea,” May 11, 2018, <https://www.wsj.com/articles/top-u-s-diplomat-holds-out-promise-of->

외교 중 한국은 ‘민주화(democratic transformation)’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한국은 특히 민주화와 동시에 경제 번영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이 외교 성공의 ‘모범 사례(poster child)’로 자주 인용된다. 이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진핑과 트럼프의 생각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미래와 정치체제에 대한 각각의 견해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북중관계의 ‘신 밀월관계’ 형성은 북핵 문제에서 한국에게도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는데 도전 요소가 될 수 있다. 얼핏 한국과 중국이 모두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평화적 수단을 사용하길 바라며,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져 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미중 갈등 심화가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가 다른 ‘민주주의 한국’과 ‘사회주의 중국’의 한반도 미래 상황에 대한 청사진이 일치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

시진핑은 확고하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남기를 원한다. 이는 김정은-트럼프 비핵화 협상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다섯 차례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어떤 조언을 주었는지 충분한 유추가 가능케 한다. 미중 갈등 심화의 배경 하에서,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국가이고, 시진핑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의 ‘혈맹적’, ‘순치적’ 우호관계를 맺는 것은 그의 말대로 전략적 선택이다.<sup>56)</sup> 이 두 가지를 통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중국의 영향력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섯 차례의 밀도 높은 정상회담을 통해 교화(教化) 과정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치달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중국 편으로 견인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신시대(新時代)’를 연 시기는 중국이 미국과의 중장기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근년에 ‘신형(新型) 주변외교’를 정비하는 때와 일치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중관

economic-prosperity-for-north-korea-1526072621 (검색일: 2019년 4월 7일).

56) 이러한 면에서 본 글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전통주의자’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므로, 지면상 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

계가 지속적인 악화의 수순을 밟는 트렌드가 고착될 것에 대비해, 그리고 미국의 '반중국' 연대 결집에 대비해, 중국이 북한을 중국 진영에 확실히 머물게 하려는 사전 정지(整地)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중국은 북핵문제와 미중관계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 왔다. 현재도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사안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중 간의 무역경쟁과 미래 패권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은 북한문제도 미중관계의 하부구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향후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이만만큼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요구를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희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복원된 북중관계를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본능이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와도 관련이 깊다.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대만이라는 주요 충돌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시진핑의 첫 집권기에 대만과 남중국해라는 두 가지의 충돌점으로 늘어났다. 그것이 시진핑의 두 번째 집권기에는 대만, 남중국해, 북한이라는 세 개의 충돌점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미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는데 이용하고 미국이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데 있어 '북한 카드'를 쓰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항할 수도 있다. 이는 한미동맹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 3. 중국 변수에 대한 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여태껏 중국의 이익이 한미의 이익과 달랐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큰 틀에서 보면 2003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개최국 역할을 한 '6자회담' 이후 지난 수년간 중국을 관여시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은 모두 실패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는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핵 해결에 대한 '책임'은 일단 부인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은 놓고 싶지 않

아한다. 또한, 알려진 중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하는 비핵화 전략을 펼치게 된다면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온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앞으로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정책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비록 북미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은 교착 국면에 빠졌지만 미국은 말 그대로 이전에 시도해 보지 않은 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지도자와 마주 앉아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한 새로운 길을 열은 것이다. 처음이라 정사 간 ‘툭다운’ 프로세스가 보여준 분명한 한계도 보았다. 하지만 이를 더욱 보완해서 향후 실무회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북미 간의 직접적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양쪽 모두 이번 교착을 교훈 삼아 보완점을 개선한 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돌출 성격으로 성사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역대 어느 북미 협상보다도 문제 해결에 양국의 최정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직접 숙의한 자리였고, 그만큼 문제 해결에 가까웠던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결국 핵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직접 마주 앉은 것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시도해볼만한 것이었다.<sup>57)</sup> 북미 협상 과정에서 동맹 관계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조를 긴밀한 수준으로 더욱 향상시키면 이 역시 북한에 대한 비핵 설득 국면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착 국면 상태에서 과거의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미국 정부의 적극성을 도모하고, 이에 한국이 더욱 창조적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향후 다시 한 번 북미가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 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중국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국은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 기존의 외교 문법인 ‘중국 역할론’에 대한 관성적 사고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57)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정부차관의 평가. 2020년 11월 15일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가 개최한 “Korea-Asia Forum”에서의 발언.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rt8jiOwk3M&loop=0> (검색일: 2020년 11월 15일).

## [참고문헌]

- 도경옥.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9).
- 이동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국제정치(KWP)』 제35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 오승렬. “미국과 중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써의 한반도와 북핵(北核) 딜레마.”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세종연구소, 2017).
- 유현정. “‘중전선언’ 관련 북·미간 입장 차이와 중국 변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18-2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이희옥, 박룡국. “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딜레마 관리대미인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연연구센터, 2013).
- Chung, Jae Ho, and Choi Myung-hae.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 Delury, John. “Triple-Pronged Engagement: China’s Approach to North Korea.”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34, No. 2 (2012).
- Glaser, Bonnie, and Wang Liang. “North Korea: The Beginning of a China-U.S. Partnership?” *Washington Quarterly*, Vol. 31, No. 3 (2008).
- Goldstein, Avery. “Across the Yalu: China’s Interest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a Changing World.” In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Haggard, Stephen, and Xian Wu. “Is China changing its views of North Korea: Some evidenc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 Han, Sukhee. “Alliance Fatigue amid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6, No. 1 (2004).
- Hao, Yufa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View.” *Asian Survey*, Vol. 27, No. 8 (1987).
- Kim, Hengkyu.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1 (2010).
- Kim, Inhan. “Is China the Boss on Nor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22, No. 1 (2017).
- \_\_\_\_\_ . “Trump power: Maximum pressure and China’s sanctions

- enforcement against North Korea.” *Pacific Review*, Vol. 33, No. 1 (2020).
- Kim, Jih-Un. “Inflated hope, unchanged reality: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sian Perspective*, Vol. 39, No. 1 (2015).
- Kim, Young Jo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at a crossroad or same old, same old.” *Asian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Vol. 8, No. 3 (2019).
- Lee, Dong Ryul. “China’s Strategy and Role on th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Korea and World Politics*, Vol. 35, No. 1 (2019).
- Lee, Hee-Ok, and Long-Guo Piao. “China’s Management of Alliance Security Dilemma with North Korea: Focused on Reconstruction of Perception abou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Geopolitics.” *Sino-Soviet Affairs*, Vol. 37, No. 3 (2013).
- Lee, Seong-Hyon. “Why Did We Get China Wrong? Reconsidering the Popular Narrative: China will abandon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 Li, Wenxin, and Kim Ji Young. “Not a blood alliance anymore: China’s evolving policy toward UN sanctions on North Korea.”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41, No. 1 (2020).
- Nicksch, Larry A. “Chin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 Oh, Seung Yul. “The Korean Peninsula as a Strategic Asset for United States and China: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Dilemma.” *National Strategy*, Vol. 23, No. 3 (2017).
-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2001).

〈신문〉

- 『연합뉴스』. “이종석 ‘북중 ‘新혈맹관계’ 진입…3차북미회담 연내 재개될 것’.” 2019년 6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051900001> (검색일: 2020년 7월 19일).
- \_\_\_\_\_. “中, ‘차이나 패싱론’ 재점화에 당혹… “중국 과소평가 안돼’.” 2018년 5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9068200083> (검색일: 2018년 5월 27일).
- 『조선일보』. “北과 순치관계라는 시진핑, 비핵화 판 흔들고 있다.” 2018년 5월 9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9/20180509](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9/20180509)

- 00269.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 『주간조선』. “‘차이나 패싱’ 현실화 병어리 냉가슴 앓는 중국.” 2018년 6월 11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13&nNewsNumb=002511100006> (검색일: 2020년 3월 18일).
- 『한겨레』. “문정인 “평화협정이후도 주한미군 주둔찬성…철수주장 한적없어”.” 2018년 5월 4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43273.html#csidxdb01afb25684cc39c0846fa7c5fe31b>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 \_\_\_\_\_. “차이나패싱 우려…중국, 북-중 관계 어떻게 풀까?” 2018년 3월 16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36456.html#csidx47281532857121687ff4651177d3855> (검색일: 2020년 3월 19일).
- 『한국일보』. “[논.담] 문정인, 동맹도 전략동반자도 수단일 뿐… 美中외교는 국익 최우선해야.” 2020년 6월 4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41528076590>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 BBC*. “Trump-Kim Jong-un summit set for Singapore on 12 June.” May 10, 2018.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074257> (검색일: 2020년 9월 27일).
- Bloomberg*. “Trump says ‘it doesn’t matter’ if Xi agrees to meeting at Osaka G20 summit.” June 14,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6-14/trump-says-it-doesn-t-matter-if-xi-agrees-to-meeting-at-g-20>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 \_\_\_\_\_. “Kissinger Says U.S. and China in ‘Foothills of a Cold War’.” November 21, 20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1-21/kissinger-says-u-s-and-china-in-foothills-of-a-cold-war> (검색일: 2020년 12월 3일).
- CNN*. “Trump: North Korea is China’s problem to fix.” January 6, 2016. <https://www.cnn.com/2016/01/06/politics/donald-trump-north-korea-china-ted-cruz-immigration/index.html> (검색일: 2020년 6월 14일).
- Moon Chung-in.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eign Affairs*. April 30, 2018.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8-04-30/real-path-peace-korean-peninsula> (검색일: 2020년 12월 2일).
- New York Times*. “4 Takeaways from Xi Jinping’s Speech Defending Communist Party Control.” December 18, 2018. <https://www.nytimes.com/2018/12/18/world/asia/xi-china-speech-takeaway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South China Morning Post*. "Donald Trump Says North Korea Could Have Been 'Influenced' by Xi Jinping to Turn on US ahead of Talks with Kim Jong-un." May 18, 2018. <https://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2146666/donald-trump-says-north-korea-could-have-been>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_\_\_\_\_. "Korean peace declaration 'is possible without China, but would be weaker'." June 6, 2018.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defence/article/2149583/korean-peace-declaration-possible-without-china-would> (검색일: 2020년 9월 20일).

\_\_\_\_\_. "Xi Jinping Rallies China for Decades-Long 'Struggle' to Rise in Global Order, Amid Escalating US Trade War." September 5, 2019.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25725/xi-jinping-rallies-china-decades-long-struggle-rise-globa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The Guardian*. "Trump confirms face-to-face talks with Kim Jong-un in Singapore in June." May 10, 20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y/10/summit-between-donald-trump-and-kim-jong-un-will-take-place-in-singapore-report> (검색일: 2020년 10월 4일).

*VOX*. "It's official: Trump is meeting Kim Jong Un in Singapore on June 12." May 10, 2018. <https://www.vox.com/world/2018/5/10/17339388/trump-kim-jong-un-singapore-june-12-north-korea> (검색일: 2020년 9월 5일).

*Wall Street Journal*. "Trump Says He'll Know If North Korean Summit Will Succeed 'Within the First Minute'." June 9, 2018. <https://www.wsj.com/articles/trump-says-hell-know-if-north-korean-summit-will-succeed-in-the-first-minute-1528559569> (검색일: 2020년 9월 14일).

\_\_\_\_\_. "Barack Obama Warns Donald Trump on North Korea Threat." November 22, 2016. <https://www.wsj.com/articles/trump-faces-north-korean-challenge-1479855286> (검색일 2020년 11월 22일).

*Washington Post*. "North Korea now making missile-ready nuclear weapons, U.S. analysts say." August 8, 2017.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north-korea-now-making-missile-ready-nuclear-weapons-us-analysts-say/2017/08/08/e14b882a-7b6b-11e7-9d08-b79f191668ed\\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north-korea-now-making-missile-ready-nuclear-weapons-us-analysts-say/2017/08/08/e14b882a-7b6b-11e7-9d08-b79f191668ed_story.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Xinhuanet*. "Xi Focus: Xi Emphasizes 'Struggles' to Achieve National Rejuvenation." September 3, 2019.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9/03/c\\_138362482.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9/03/c_138362482.htm)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Xinhua News Agency*. “Securing a Decisive Victory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in All Respects and Strive for the Great Succes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Delivered at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ctober 18, 2017.” December 18, 2019. [http://www.xinhuanet.com/english/special/2017-11/03/c\\_136725942.htm](http://www.xinhuanet.com/english/special/2017-11/03/c_136725942.htm)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人民网*. “揭秘: 抗美援朝战争 神秘的中朝两军联合司令部.” 2010년 8월 19일. <http://dangshi.people.com.cn/GB/85039/12483098.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위 주소가 막힐 경우 다음 주소에서 검색할 수 있음. <https://kknews.cc/history/22aaaz.html>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人民网-国际频道*. “外交部: 半岛问题相关直接当事方应勇于承担起责任” 2017년 8월 30일. <http://world.people.com.cn/n1/2017/0830/c1002-29505039.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澎湃*. “外交部: 中方支持半岛早日结束战争状态, 愿为此发挥积极作用.” 2018년 4월 19일.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085212](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085212) (검색일: 2020년 4월 15일).

*新华网*. “历久弥坚金不换, 习近平著文赞中朝关系.” 2019년 6월 20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xxjxs/2019-06/20/c\\_1124646674.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xxjxs/2019-06/20/c_1124646674.htm)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_\_\_\_\_. “习近平将出席二十国集团领导人第十四次峰会.” 2019년 6월 23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6/23/c\\_1124659526.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6/23/c_1124659526.htm)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_\_\_\_\_. “习近平: 在纪念马克思诞辰200周年大会上的讲话.” 2018년 5월 4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04/c\\_1122783997.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5/04/c_1122783997.htm)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新华社*. “外交部: 朝核问题的实质是朝美矛盾.” 2016년 9월 12일. [http://www.xinhuanet.com/world/2016-09/12/c\\_1119554308.htm](http://www.xinhuanet.com/world/2016-09/12/c_1119554308.htm) (검색일: 2020년 7월 15일).

\_\_\_\_\_. “习近平同韩国总统文在寅通电话.” 2020년 5월 13일. [http://www.gov.cn/xinwen/2020-05/13/content\\_5511381.htm](http://www.gov.cn/xinwen/2020-05/13/content_5511381.htm) (검색일: 2020년 12월 5일).

*中国新闻网*. “外交部: 中朝是正常国家关系 坚决反对朝鲜核试验.” 2013년 3월 8일. <http://www.chinanews.com/gn/2013/03-08/4628424.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中央广播电视总台央视网*. “习近平以三“新”续写中朝友谊新篇章.” 2019년 6월 13일. <https://news.cctv.com/2019/06/23/ARTIm8jfZvfIydDXmjZX0QLc190623.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인터넷자료>

무역협회. “북한, 중국 무역의존도 5배 이상 급증.” 2019년 12월 2일. [http://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Detail.do?pageNavId=238&pageIndex=2&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Classification=01&search\\_mode=&search\\_word=&s\\_date1=&s\\_date2=&form\\_type=&actionName=&sNo=8982](http://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Detail.do?pageNavId=238&pageIndex=2&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Classification=01&search_mode=&search_word=&s_date1=&s_date2=&form_type=&actionName=&sNo=8982)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DPRK Today. “WPK Friendship Visiting Group Meets Xi Jinping.” 2018년 5월 18일. <https://kcnawatch.org/newstream/1528033322-897621042/wpk-friendship-visiting-group-meets-xi-jinping/> (검색일: 2019년 12월 17일).

KCNA Watch. “김정은위원장 중국 대련시 방문, 습근평총서기와 또다시 상봉.” 2018년 5월 8일. <https://kcnawatch.org/newstream/289385/%c2%b7%ea%b9%80%ec%a0%95%ec%9d%80%ec%9c%84%ec%9b%90%ec%9e%a5-%ec%a4%91%ea%b5%ad-%eb%8c%80%eb%a0%a8%ec%8b%9c-%eb%b0%a9%eb%ac%b8%ec%8a%b5%ea%b7%bc%ed%8f%89%ec%b4%9d%ec%84%9c%ea%b8%b0%ec%99%80-%eb%98%90/>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_\_\_\_\_. “연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 2018년 3월 28일. <https://kcnawatch.org/newstream/1574343791-110883579/%ec%97%b0%ed%9a%8c%ec%97%90%ec%84%9c-%ed%95%98%ec%8b%a0-%ea%b9%80%ec%a0%95%ec%9d%80%eb%8f%99%ec%a7%80%ec%9d%98-%ec%97%b0%ec%84%a4/> (검색일: 2019년 12월 17일).

\_\_\_\_\_.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2018년 6월 20일. <https://kcnawatch.org/newstream/1529467245-451344064/%ec%a1%b0%ec%84%a0%eb%a1%9c%eb%8f%99%eb%8b%b9-%ec%9c%84%ec%9b%90%ec%9e%a5%ec%9d%b4%ec%8b%9c%eb%a9%b0-%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19년 12월 17일).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Signing of the 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 January 15, 20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u-s-china-phase-one-trade-agreement-2/> (검색일: 2020년 9월 2일).

外交部.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9년 6월 20일. <https://www.fmprc.gov.cn/web/tpxw/t1674111.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2020년 8월 30일).

\_\_\_\_\_.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8년 6월 19일. <https://www.fmprc.gov.cn/web/tpxw/t1569948.shtml> (검색일: 2020년 8월 30일).

[ABSTRACT]

## 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the U.S.-China Geopolitical Rivalry

Seong-hyon Lee | Direct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Sejong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lineate how the “Chinese factor” influenced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specially under the currently unfolding U.S.-China rivalry. Usually, China is considered a “constant” in North Korean affairs. Therefore, it is regarded common sense that we should cooperate with China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historical context, such as the Korean War,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was clearly felt. This essay, however, uses its imagination to ask a bold question: ‘Can we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out China?’ Trump said, before taking office, that North Korea is China’s problem to fix. But after taking office, he became the first incumbent U.S. leader to directly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As much as the United States is active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s role and strategic space was reduced in reverse. The South Korean media used the term “China passing” (meaning, China is being sidelined) to point out the unusual phenomenon. This essay scrutinizes Trump’s unpredecident diplomatic outreach and China’s role. It ends with future policy implications.

---

Key Words: U.S.-China relations, China-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투 고 일: 2020. 10. 26

심 사 일: 2020. 11. 11

게재확정일: 2020. 11. 30